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 변화유형과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강민지* · 김지민* · 이지예* · 양은주**

I 알기 쉬운 개요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은 종종 불안을 수반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떠나면서 진로선택 및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해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진로불안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부모와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애착과,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 특성,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지각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 변화양상은 불안에 취약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안이 증가하는 유형, 초기 불안 수준은 평균 수준이나 점차 불안이 증가하는 유형, 불안 수준에 변화가 없는 유형, 점차 불안이 감소하는 유형의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사회적 낙인감은 집단 간 차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냉대, 차별적 시선을 더 크게 지각할수록 진로불안이 증가하는 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과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체계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이들을 향한 사회적 낙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시적인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yange@korea.ac.kr

투 고 일 / 2022. 3. 2.

심 사 일 / 2022. 4. 28.

심사완료일 / 2022. 5. 10.

DOI/10.14816/sky.2022.33.2.137

I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불안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고, 변화양상의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시점의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의 2014-2016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영향요인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미시체계 변인으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외체계 변인으로 지역사회 사회통합, 거시체계 변인으로 사회적 낙인감을 설정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연령이 추가되었다. 연구 결과 이질적인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4가지 잠재계층이 확인되었으며, 2개의 증가하는 패턴과 1개의 유지되는 패턴,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증가형의 경우 초기치와 변화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집단을 취약한 증가형으로 명명하였고, 나머지 집단을 각각 증가형, 유지형, 감소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사회적 낙인감은 유지형과 감소형을 제외한 모든 잠재계층의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사회통합은 증가형과 유지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일수록 유지형이나 감소형보다는 취약한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영향력은 어떤 잠재계층의 분류에도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개입보다 사회 전체의 변화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진로불안, 성장혼합모형

I. 서 론

청소년기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1)의 학업중단을 조사에 따르면, 학업중단자 수 및 학업중단율은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2015년에 47,070명(0.8%)이었던 학업중단자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52,261명(1.0%)에 이르렀다. 한편 2020년에는 학업중단자 수 및 학업중단율이 32,027명(0.6%)으로 이례적으로 크게 감소했는데(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1), 이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면서 등교일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권형진, 2021). 즉, 학업중단을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되며, 등교가 정상화된다면 학교 부적응 문제 등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남궁민, 2021).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거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002-2011년에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학업중단 이후 적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김범구, 2012). 반면 2012-2018년에는 불안과 우울, 자기효능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특성 관련 요인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진로준비와 진로장벽 등 진로와 자립 관련 주제도 20%를 차지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조혜영, 2019). 진로는 분명히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중대한 어려움이다.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 찾기는 선입견, 편견, 무시에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이 두 번째로 빈번하게 경험하는 어려움이었다(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 노지혜와 문성호(2019)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직접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문화진(2019a) 역시 이들이 진로선택 및 준비 과정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정보는 학업중단 시 학교로부터 받는 정보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윤철경 외, 2018).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을 결정했을 때 필요했던 도움으로 ‘진로상담’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윤철경 외, 2015), 진로 관련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았다(윤철경 외, 2018; 조아미, 이진숙, 2014;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하지 못하거나 이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진로와 미래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큰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조혜정, 홍다영, 2017). 최지연과 김현철(2016)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체로 미래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재의 삶에서 비롯된 불안감과 걱정, 막막함을 드러냈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진로불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진(2019b)의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진로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서성식(2018)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형하와 권충훈(2020)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불안이 높을수록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은 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대부분 진로불안의 부정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를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불안은 정서적 변인으로서 단순한 진로 미결정(indecision)이 아닌 만성적인 우유부단함(indecisiveness)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진로정보 부족과 같은 진로장벽보다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Crites, 1981; Chartrand, Robbins, Morrill & Boggs, 1990에서 재인용). 이에 진로불안의 종단적 양상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기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불안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양상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 변화유형은 몇 가지이며, 각 유형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미시체계 변인, 외체계 변인, 거시체계 변인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 변화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각 요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

Saka, Gati and Kelly(2008)는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실치 않은 상태에 대해 느끼는 초조감, 긴장, 불안감 등과 같은 불편한 정서를 진로불안(career anxiety)이라고 정의했다. Bloom(2010)에 의하면 진로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자신감 부족, 낮은 자존감, 위축된 대인관계, 열등감, 취업 및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한

다. 동시에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거나 얻은 정보를 왜곡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진로 결정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Peterson, Sampson & Reardon, 1991). 즉, 진로불안은 개인이 진로 결정에 몰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방해할 수 있다(Creed & Hughes, 2013). 진로불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다문화 청소년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유인창, 2021; 문화진, 2019b). 이는 가장 적응적인 형태인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를 다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다(조혜정, 홍다영, 2017).

최수정(2007)은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불안이 3년 동안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치의 진로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변화 속도가 빠름을 발견하였다. 반면 허균(2012), 문승태와 주지영(2021), 조정미(2022)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진로불안의 상위개념인 진로장벽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연구들은 진로불안의 전체적인 변화양상만을 추정했을 뿐 하위집단의 존재를 가정하지는 않았다. 노연경(2011)은 이러한 변화양상에 개인차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진로불안이 저수준 집단, 증가 집단, 고수준 집단이라는 3가지 잠재계층으로 분류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불안에도 상이한 변화양상이 존재할 것이며, 증가하는 패턴과 유지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진로불안은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인, 개인내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 최소영(2021)과 유인창(2021)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진로불안을 보였다. 학년 또한 진로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도희, 2022). 개인내적 변인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서성식, 이종연, 2017; 우지윤, 김영화, 2021; 문화진, 2019a), 계획된 우연 기술(문화진, 2019a), 반추(Shin & Lee, 2019), 자기자비(우지윤, 김영화, 2021)가 진로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사회적 변인에는 부모, 또래,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유성경, 이항심, 황매향, 홍세희, 2007; 최수연, 2020; 김지혜, 2008)와 사회적 낙인(김범구, 조아미, 2013), 사회비교경향성(유기은, 이기학, 2016), 사회정체화(허경민, 이기학, 2017) 등이 있다. 김민선(2018)에 따르면 부모와의 진로갈등이 높을수록 진로불안이 높아지며, 김홍석(2013)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강요된 사회비교가 그러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진로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전영주, 박미화, 2018), 사회적 낙인은 오히려 진로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지원, 문성호, 2020).

2.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

청소년은 가족,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등 다양한 환경에 둘러싸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의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론적 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태한과 전영욱(2021)은 발달에 있어 개인과 환경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모형이 청소년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적용하여 패널조사 데이터에 존재하는 진로불안의 영향요인을 미시체계 변인, 외체계 변인, 그리고 거시체계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Bronfenbrenner(1995)에 따르면 미시체계는 개인이 독특한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을 의미하는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이에 해당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건강하고 안정된 애착 관계는 자녀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고(Blust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 청소년 자녀의 진로장벽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유성경 외, 2007). 또한, 최수연(2020)은 청소년이 또래와의 관계나 대화 내용에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며,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유지애, 조은애, 이아라, 2019; 이정림, 조영아, 2017),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진로불안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외체계는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환경이다(Bronfenbrenner, 1995). 지역사회에서의 정서적 지지가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에 중요하다는 김지혜(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사회통합을 외체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저소득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혜원, 정지형, 김순정, 2019).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는 문화나 하위문화 전반의 수준에서 존재하는 기본적인 신념체계(Bronfenbrenner, 1995)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아라는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는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심리·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정문경, 2021; 고은정, 김병년, 2020; 박동진, 이지연, 2020; 김범구, 조아미,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의 각 체계에 존재하는 생태학적 요인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불안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에서 수행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정규 중학교 및 일반/특성화 고등학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며, 데이터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 면접 조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년 주기로 총 5회에 걸쳐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변인인 진로불안이 측정되지 않은 2013년도의 자료는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마지막 조사 시점인 2017년도의 자료는 분석에 활용한 초기시점인 2014년에 비해 결측률이 매우 높아(총 599명 중 46.9%) 표본의 대표성을 낮추고 결과를 편향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014-2016년도(이하 1차년도-3차년도)까지 총 세 시점에서 한 번 이상 응답한 656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도구

1) 진로불안

진로불안은 진로장애 척도의 하위척도인 미래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진로장애 척도는 김은영(2001)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주금옥(2002)이 청소년용으로 수정·개발하였고,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진로장애 척도의 하위요인인 미래불안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불안 정도를 평가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항 4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1차시점 .82, 2차시점 .86, 3차시점 .85로 나타났다.

2) 부모애착

부모애착 척도는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최인재, 이기봉, 2010)에서 개발된 부모의 지원 척도이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진은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일부 문항을 수정한 뒤 부모애착이라고 명명했다. 부모애착은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예로는 ‘(부모님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부모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애착의 1차시점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3) 또래애착

또래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와 또래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김지연(1995)이 번안·수정한 척도에 기초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진은 이 중 3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또래애착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예로는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또래애착의 1차시점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4) 지역사회 사회통합

지역사회 사회통합 척도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김지선, 홍영오, 2011)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사회통합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예로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사회통합 척도의 1차시점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5)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낙인감 척도는 Harvey(2001)가 개발한 낙인 척도(Stigmatization Scale)를 주금옥(2002)이 번안한 도구에 기초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진은 해당 척도에

서 8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그 예로는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감 척도의 1차시점 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 변화유형을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Muthén & Shedden, 1999)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종단자료 분석에 사용되며, 하나의 모집단 내에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초기치와 변화율의 측면에서 서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는 하위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선택수, 2010; Petras & Masyn, 2010). 자료를 대표하는 하나의 변화양상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성장모형과는 달리, 성장혼합모형은 변화양상에서의 개인차에 초점을 맞춘다.

자료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결과변인에 대한 측정동등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단적 확인적 요인분석(Longitudina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CFA)을 실시한다. 측정동등성 검증은 관례에 따라 요인구조의 동등성을 검증하는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각 시기별 요인 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하는 측정단위동일성(metric invariance) 검증을 실시한 뒤 두 모형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손원숙, 2012). 측정동등성의 확보는 관찰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관계가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며(손원숙, 2012), 응답자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평정 척도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박원우, 양윤희, 이현정, 최용준, 김문정, 2010에서 재인용), 진로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모든 시점에서 응답자들에게 같은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Longitudinal Growth Model: LGM)을 적용한다. 잠재성장모형은 집단 내 개인들의 변화양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패턴이 존재하며, 각 개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의 영향력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집단을 대표하는 가장 적합한 변화양상을 추정한다(선택수, 2010). 이때 자료에 포함된 시점(n)에 따라 무변화모형부터 n-2차 모형까지를 적용하고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함으로써 전체 변화양상을 추정하게 된다(장유나, 오현정, 안소영, 홍세희, 2020). 다음으로,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집단 내 진로불안의 이질적인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잠재계층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잠재계층의 수를 추정하여 최종 연구모형을 도출한다. 잠재계층 수는 연구자가 모형 간 통계적, 해석적 적합도를 비교하여 결정한다(전현희, 이청아, 최정원, 홍세희, 2019). 성장혼합모형이 선형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시점 t 에서 개인 i 의 진로불안(y_{it})을 설명하는 성장곡선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Muthén et al., 2002; 전현희 외, 2019에서 재인용). 이때 η_{0i} 는 절편, η_{1i} 는 일차변화율을 의미하는 잠재성장요인을 나타내며, λ_t 는 시간에 따른 요인계수이다. 잠재계층(k)에 따른 성장요인의 평균은 β_{0k} , β_{1k} , 분산은 ζ_{0i} , ζ_{1i} 로 표기하였다.

$$\begin{aligned} y_{it} &= \eta_{0i} + \eta_{1i}\lambda_t + \epsilon_{it} \\ \eta_{0i} &= \beta_{0k} + \zeta_{0i} \\ \eta_{1i} &= \beta_{1k} + \zeta_{1i} \end{aligned}$$

마지막으로 예측요인이 개인이 진로불안 변화양상에 따른 각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다. 이때, 성별과 발달수준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결측치의 처리를 위해서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였다. 종단적 확인적 요인분석과 잠재성장모형, 성장혼합모형의 분석에는 Mplus 8.7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다중공선성 진단과 상관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SPSS 26을 사용하였다.

IV. 결 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의 초점이 되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세 시점의 진로불안은 모두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모든 시점의 진로불안은 1차년도 부모애착, 또래애착과는 부적인 상관을, 사회적 낙인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지역사회 사회통합은 1차와 3차년도의 진로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예측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측변인들의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공차는 .735~.989의 값을, 분산팽창지수는 1.011~1.361의 값을 가져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	1								
2	.41**	1							
3	.35**	.47**	1						
4	.12**	.09*	.10*	1					
5	.03	.04	.03	-.09*	1				
6	-.26**	-.19**	-.11*	-.98*	-.22**	1			
7	-.17**	-.20**	-.14**	.00	-.01	.21**	1		
8	-.09*	-.06	-.13**	-.06	-.10*	.13**	.06	1	
9	.39**	.28**	.18**	.05	.03	-.43**	-.30**	-.03	1
<i>N</i>	599	549	427	656	656	599	594	594	599
<i>M</i>	2.22	2.24	2.22	1.41	17.80	2.94	3.10	2.06	2.05
<i>SD</i>	0.68	0.75	0.72	0.49	1.09	0.61	0.60	0.66	0.46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p < .05$, ** $p < .01$

1-3: 진로불안 1차-3차, 4: 성별, 5: 연령, 6: 부모애착, 7: 또래애착, 8: 지역사회 사회통합, 9: 사회적 낙인감

2. 모형의 적합도

1) 측정동등성 검증

다음으로 진로불안의 종단적 측정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단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χ^2 검증이 있으나,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어(홍세희, 2000), 적합도 지수(fit index)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가 $\geq .90$ 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평가하며(홍세희, 2000), RMSEA는 $< .05$ 일 때 좋은 적합도, $< .08$ 일 때 보통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또한, 기저모형인 형태동일성 모형에 비해 측정단위동일성 모형의 CFI 변화량이 $< -.010$, RMSEA 변화량이 $< .015$ 일 때 측정동등성이 성립한다(Chen, 2007). 표 2에 제시된 종단적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형태동일성 모형은 모든 적합도 지수가 좋음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측정단위동일성 모형 또한 CFI와 TLI가 기준을 만족하였고, RMSEA는 $< .08$ 이었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두 모형의 χ^2 차이값은 .05 수준에서 유의했으나, CFI와 RMSEA 변화량이 측정동등성이 성립되는 기준을 만족했다.

표 2

종단적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χ^2	df	CFI	TLI	RMSEA
형태동일성	100.625***	39	0.972	0.953	0.049
측정단위동일성	125.971***	45	0.963	0.946	0.052

*** $p < .001$

2) 무조건 잠재성장모형 분석

진로불안의 전반적인 변화양상과 그에 따른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무조건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정보지수로, 상대적으로 값이 작을수록 간명하면서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오영교, 차성현, 2018). 분석 결과 선형모형의 AIC 값이 더 작은 동시에 χ^2 값이 유의하지 않고, 적합도 지수가 적절하였으므로 선형모형이 무변화모형보다 진로불안 변화양상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선형모형으로 분석한 진로불안의 초기치 및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표 4에 제시하였으며, 변화율의 평균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의 초기 수준과 이후 변화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모형별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RMSEA	AIC
무변화모형	10.655*	4	0.968	0.976	0.050	3219.372
선형모형	0.098	1	1.000	1.013	0.000	3214.815

* $p < .05$

표 4

무조건 선형 잠재성장모형 결과

	초기치	변화율
평균(표준오차)	2.221*** (0.026)	0.007 (0.013)
분산(표준오차)	0.217*** (0.030)	0.023** (0.007)

** $p < .01$, *** $p < .001$

3) 성장혼합모형 분석

이질적인 변화양상을 보이는 잠재계층을 추정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지수인 AIC,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지수, 그리고 잠재집단 수에 따른 상대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의 유의확률을 고려하였다. 계층별 표본의 최소 비율은 연구자마다 기준이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1%를 제시한다(Jung & Wickrama, 2008). 가장 먼저 BLRT를 확인하여, 값이 유의하지 않은 잠재계층이 2개인 모형, 5개인 모형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은 BLRT 값이 유의하고 잠재계층이 3개인 모형보다 정보지수, Entropy 면에서 적절했다(Petras & Masyn, 2010). 이에 가장 분석에 적합한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으로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5
성장혼합모형의 적합도

잠재계층 수	2	3	4	5
AIC	3213.724	3193.395	3151.109	3149.600
BIC	3263.072	3256.202	3227.374	3239.323
SABIC	3228.147	3211.751	3173.399	3175.823
Entropy	0.320	0.592	0.674	0.619
BLRT	0.2857	0.0000	0.0000	0.3333
n(%)	1=235(35.8%) 2=421(64.2%)	1=357(54.4%) 2=182(27.7%) 3=117(17.8%)	1=198(30.2%) 2=15(2.3%) 3=121(18.4%) 4=322(49.1%)	1=120(18.3%) 2=15(2.3%) 3=146(22.3%) 4=64(9.6%) 5=311(47.4%)

%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6에 제시한 잠재계층별 특성을 살펴보면, 잠재계층 1의 경우 차수가 거듭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증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잠재계층 2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초기치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취약한 계층임을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취약한 증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잠재계층 3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감소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 4는 일차변화율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유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계층별 1차시점 연령과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평균연

령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 집단의 성별 비율은 남성을 기준으로 취약한 증가형의 경우 33.3%, 증가형은 53.5%, 유지형은 60.9%, 감소형은 64.5%였다.

표 6

잠재계층별 분류비율과 모수추정치

잠재계층	분류비율	잠재성장요인	추정된 평균	표준오차
취약한 증가형	2.3%	초기치 일차변화율	2.959*** 0.376***	.193 .108
증가형	30.2%	초기치 일차변화율	2.447*** 0.228***	.060 .035
유지형	49.1%	초기치 일차변화율	2.140*** -0.022	.049 .028
감소형	18.4%	초기치 일차변화율	1.938*** -0.382***	.077 .039

*** $p < .001$

4) 잠재계층 분류 영향요인

마지막으로 진로불안 변화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유일한 범주형 변수는 성별로, 남성이 1, 여성이 2로 코딩되었다. 먼저 취약한 증가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증가형, 유지형, 감소형 집단과 비교하였다. 비교집단을 증가형으로 설정하였을 때, 사회적 낙인감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취약한 증가형보다 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약 85.9% 감소했다. 비교집단을 유지형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사회적 낙인감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취약한 증가형보다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약 94.6% 감소하였으며, 성별의 영향력도 유의하여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보다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약 73% 감소했다. 비교집단을 감소형으로 설정하였을 때, 사회적 낙인감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취약한 증가형보다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약 92.4% 감소했으며, 역시 여성일 경우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약 71.1% 낮아졌다.

다음으로 증가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유지형, 감소형 집단과 비교하였다. 유지형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사회적 낙인감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증가형보다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약 62.2% 감소했으며, 지역사회 사회통합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약 54.6% 증가했다. 감소형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사회적 낙인감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증가형보다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약 46.2%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유지형을 기준집단으로

로 설정하여 감소형 집단과 비교한 경우에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사회적 낙인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다른 유형보다는 취약한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지역사회가 통합되어 있을수록 증가형보다는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여성일수록 유지형이나 감소형보다는 취약한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역사회 사회통합이나 성별은 사회적 낙인감에 비해 잠재계층 분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유의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표 7

잠재계층 분류 영향요인

기준집단	증가형				유지형	
비교집단	유지형		감소형		감소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성별	-.244	.259	-.180	.196	-.061	.237
나이	-.048	.116	-.032	.091	-.018	.103
부모애착	.185	.242	-.032	.179	.218	.228
또래애착	-.015	.019	-.012	.019	-.003	.003
지역사회 사회통합	.435*	.186	.266	.143	.181	.169
사회적 낙인감	-.972**	.311	-.620**	.237	-.329	.287

* $p < .05$, ** $p < .01$

기준집단	취약한 증가형					
비교집단	증가형		유지형		감소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성별	-1.056	.611	-1.310*	.632	-1.241*	.607
나이	-.187	.280	-.236	.289	-.219	.278
부모애착	-.156	.480	.027	.508	-.189	.479
또래애착	-.048	.404	-.063	.404	-.059	.404
지역사회 사회통합	.348	.429	.792	.444	.620	.427
사회적 낙인감	-1.956**	.678	-2.927***	.712	-2.578***	.679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불안의 중단적 변화유형을 확인하고, 잠재계층의 분류에 영향을 미친 초기시점의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영향요인으로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였고,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미시체계 변인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외체계 변인인 지역사회 사회통합, 거시체계 변인인 사회적 낙인감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불안은 취약한 증가형, 증가형, 유지형, 감소형이라는 4가지 잠재계층을 가지며, 사회적 낙인감, 지역사회 사회통합, 그리고 성별 변인이 잠재계층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회적 낙인감의 경우 유지형과 감소형의 분류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분류에 영향력을 지니는 반면, 지역사회 사회통합과 성별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적고 유의확률 또한 높은 편이므로 1종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중 과반에 가까운 비율은 처음과 유사한 수준의 진로불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으며, 감소하는 경우보다는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유지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결과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쉽게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허균(2012), 문승태와 주지영(2021) 등의 국내 진로장벽 중단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진로불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는 점은 최수정(2007)의 연구와, 변화양상이 다른 집단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노연경(2011)의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뚜렷하게 보고되지 않았던 감소형 집단이 발견되었고, 증가형 또한 2개의 유형으로 보다 상세하게 분류되었다. 이러한 차별점은 후속 연구에서 반복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 변화유형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거시체계 변인인 사회적 낙인감이 집단의 분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퇴 이후 사회로부터 받는 편견과 무시 때문에 사회적 낙인감을 지각하게 되며, 이것이 진로장애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고은정, 김병년, 2020; 박동진, 이지연, 2020; 정문경, 2021)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미시체계 변인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그리고 연령은 어떠한 변화유형 분류에도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니었으며, 성별과 지역사회 사회통합은 제한된 결과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는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민선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이 진로미결정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 미시체계 변인과 외체계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유

지에 외, 2019; 황혜원 외, 2019) 또한 존재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경우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정이, 이영선과 박정민(2003)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불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최소영(2021)과 유인창(2021)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진로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김도희(2022)는 학년이 진로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비교 검토할 때,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횡단연구로 진행된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종단적인 진로불안 변화양상을 구분하고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진로미결정의 종단자료를 사용한 김민선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애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연구 대상이 학교 청소년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점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경험하는 스트레스(김현지, 양명숙, 2017), 학업과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사회 구조적 장벽(금명자, 2008),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낙인감을 지각할 수 있다(문승태, 주지영, 2021; 이정립, 조영아, 2017). 권해수, 서정아와 정찬석(2007)은 확고한 계획이나 의욕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활동 공간이 집에서 사회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그들을 향한 사회의 냉대와 편견, 불신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저평가나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이러한 경험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으며(조수민, 안은미, 정익중, 2020; 박지원, 문성호, 2020), 이는 비행이나 일탈 등 실제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낙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박봉선, 2019). 이들이 내면화한 사회의 시선은 자퇴를 흠으로 생각하는 가족이나, 학교를 다니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불편감이나 소외감으로 경험되어 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권해수 외, 2007; 이지연, 조아미, 2021). 진로란 자기개념이 사회적 역할을 통해 구현되는 발달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Super, 1988),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차별받을 것이라고 지각한다면 진로선택에 있어 비관적이고 불안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중단과 그 이후의 결과는 중대한 스트레스원인 동시에 극심한 사회적 낙인감을 매개로 진로불안을 유발하는 생활 사건이기 때문에, 학교 청소년들과 달리 부모나 또래와의 애착 관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불안이라는 정서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진로결정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불안을 중심으로 종단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정서적 경험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불안이 감소하는 집단은 소수이며,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진로불안이 증가하는 집단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진로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이들의 느끼는 불안감을 다루어 줄 수 있는 정서중심 개입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불안의 증가에 있어서 사회적 낙인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개입은 학업중단 사유나 심리·정서적 문제 같은 개인 수준 혹은 이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부모나 또래의 역할을 주로 제안했으나, 본 연구결과는 이들에게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정의 옹호 접근(정지선, 2020)에서 주장하는 바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사회체계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낙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시적인 개입이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조사 데이터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변인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Bronfenbrenner가 제안한 일부 체계에 부합하는 예측변인(예: 중간체계에 해당하는 변인)은 선정할 수 없었다. 아울러, 진로불안 변화양상의 차이를 보다 민감하게 변별할 수 있는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성, 자율성, 진로정보탐색(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진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김보람, 김봉환, 2015) 등이 중요하게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불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다양한 수준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초기시점을 기준으로 조사집단의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으며, 중학생은 매우 적었고 초등학생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발달적으로 더 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학업중단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이 적지 않으므로(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1),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달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진로불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51.5%는 “학업중단=문제청소년”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국가정책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 2004; 권해수 외, 2007에서 재인용). 이지연, 조아미(2021)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낙인은 타인과 자기 내부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지각되므로 이에 대한 개입 역시 사회와 개인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 또는 대학입시에서의 차별과 배제(전경숙, 2006; 이지연, 조아미, 2021), 진로선택 과정에서 학교에 다닐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정보에서의 소외(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등 외부에 실재하는 사회적 차별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

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낙인감을 내면화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안, 무력감, 열등감 등을 경험했을 때 곧바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접근성 있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이지연, 조아미, 2021),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을 즉각 발견하여 개입하고 지속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확도 높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노기호, 2014).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한 상태일 뿐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므로(박병금, 2017), 이들이 학교 밖 세상에 적응하고 진로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은정, 김병년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2), 105-131. doi:10.21509/kjys.2020.12.27.12.105
- 권해수, 서정아, 정찬석 (2007). 대안학교와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의 학교밖 경험 비교: 개념도 방법론을 통하여. **상담학연구**, 8(2), 657-674. doi:10.15703/kjc.8.2.200706.657
- 권형진 (2021.06.08.). 코로나로 학교 안 가니 학업중단 학생 줄었다...10년새 최저. <https://www.news1.kr/articles/?4332569>에서 2021년 11월 18일 인출.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99-317.
- 김도희 (2022). 대학생의 취업불안, 구직 자기효능감, 학년,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진로계획의 구조적 관계. **교육논총**, 42(1), 101-121. doi:10.25020/je.2022.42.1.101
- 김민선 (2018).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진로갈등과 진로결정 어려움의 관계: 부정적 진로기대와 진로결정 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2), 135-157. doi:10.21509/kjys.2018.12.25.12.135
- 김민선, 서영석 (2010). 자기효능감 · 개인배경 · 맥락적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2), 67-96.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보람, 김봉환 (2015). 진로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8(2), 1-22.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9.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혜 (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한, 전영욱 (2021).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한 청소년학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8(1), 75-93. doi:10.34244/jfoys.2021.18.1.75

- 김현지, 양명숙 (2017).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23-34. doi:10.14400/jdc.2017.15.1.23
- 김홍석 (2013). 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상담학연구**, 14(2), 1165-1187. doi:10.15703/kjc.14.2.201304.1165
- 남궁민 (2021.06.08). 코로나 역설? 학교 못가니 학업포기 학생 3분의2로 줄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7065>에서 2021년 11월 20일 인출.
- 노기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의 제정 방향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6(3), 79-103. doi:10.17317/tjle.26.3.201412.79
- 노언경 (2011). 대학생의 진로 불안감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직업교육연구**, 30(1), 135-151.
- 노지혜, 문성호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 61-86. doi:10.17854/ffyc.2019.04.58.61
- 문승태, 주지영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낙인감의 종단적 인과관계 검증: 남녀 청소년의 모형 비교. **진로교육연구**, 34(4), 105-124. doi:10.32341/jcer.2021.12.34.4.105
- 문화진 (2019a).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 불안의 관계: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 797-815. doi:10.22251/jlcci.2019.19.1.797
- 문화진 (2019b).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불안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445-464. doi:10.22251/jlcci.2019.19.23.445
- 박동진, 이지연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2), 1-26. doi:10.36697/skya.2020.6.2.1
- 박병금 (2017).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의 활동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1), 100-112. doi:10.5392/jkca.2017.17.01.100
- 박봉선 (2019).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81-106. doi:10.17997/swry.62.1.4
- 박원우, 양윤희, 이현정, 최용준, 김문정 (2010). 측정동등성의 의미와 검증방법. **노사관계연구**, 21, 87-138.
- 박지원, 문성호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3, 5-30. doi:10.17854/ffyc.2020.07.63.5

-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0.
- 서성식 (201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우연기술에 의해 조절된 진로불안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성식, 이종연 (201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진로불안의 매개효과: 일반계 고등학생과 특성화 고등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0(2), 173-197. doi:10.22417/dpss.2017.10.10.2.173
- 손원숙 (2012). 종단자료에서의 측정 동등성 평가를 위한 LCFA와 DIF 기법의 적용. **교육평가연구**, 25(4), 701-719.
- 선택수 (2010). 종단프로파일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 오영교, 차성현 (2018).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유형 분석: 잠재계층분석방법(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통계연구**, 23(3), 39-64. doi:10.22886/jkos.2018.23.3.39
- 우지윤, 김영화 (2021). 지방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의 관계: 사회 비교경향성과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295-308. doi:10.22251/jlcci.2021.21.13.295
- 유기은, 이기학 (2016).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목표불일치와 자기격려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07-429. doi:10.16983/kjsp.2016.13.3.407
- 유성경, 이항심, 황매향, 홍세희 (2007). 학업우수 여학생의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3), 357-380.
- 유인창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불안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정이, 이영선, 박정민 (2003). 청소년의 진로불안 감소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총서)**, 1-123.
- 유지애, 조은애, 이아라 (201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973-994. doi:10.22251/jlcci.2019.19.10.973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83.
- 윤철경, 최인재, 김강호, 유성렬, 김태화, 손희정 (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84.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정림, 조영아 (2017).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6), 90-102. doi:10.5762/KAIS.2017.18.6.90
- 이지연, 조아미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3(1), 55-82. doi:10.19034/kayw.2021.23.1.03
- 이형하, 권충훈 (2020).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불안과 우울 사이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관계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8(2), 167-168.
- 장유나, 오현정, 안소영, 홍세희 (2020).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26(4), 143-169. doi:10.29318/ker.26.4.6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전영주, 박미화 (2018).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7(2), 23-37. doi:10.22839/adp.2018.7.2.23
- 전현희, 이청아, 최정원, 홍세희 (2019).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9(4), 97-126. doi:10.22914/jlp.2019.19.4.004
- 정문경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방임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의 매개 효과. **인문사회** 21, 12(5), 579-592. doi:10.22143/hss21.12.5.41
- 정지선 (2020).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225-248. doi:10.23844/kjcp.2020.02.32.1.225
- 조수민, 안은미, 정익중 (2020).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장벽 유형과 사회적 낙인감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22(3), 201-228. doi:10.19034/kayw.2020.22.3.08
- 조아미, 이진숙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청소년학연구**, 21(7), 145-170.
- 조정미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 사회적 낙인, 자아존중감의 시간적 발달 관계 및 중단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혜영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2), 485-498. doi:10.22143/hss21.10.2.35
- 조혜정, 홍다영 (2017).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2), 35-61. doi:10.14816/sky.2017.28.2.35
- 주금옥 (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소영 (2021). 특성화고 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 유형에 따른 진로적응성,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불안의 차이.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수연 (2020). 일반계 여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수정 (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대학선택 영향요인, 진로불안감 및 진로선택 불만족의 관계에 관한 잠재성장모형. 한국교육고용패널 제 3회 학술대회 논문집, 401-432.
- 최인재, 이기봉 (20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건강·안전(보호) 지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지연, 김현철 (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103-132. doi:10.21509/kjys.2016.03.23.3.10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1). 연도별 학업중단율.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95&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에서 2021년 11월 17일 인출.
- 허경민, 이기학 (2017). 대학생의 개인정체화와 사회정체화가 진로정체감 성취수준을 매개로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0(2), 17-40. doi:10.32341/jcer.2017.06.30.2.17
- 허균 (2012).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31(1), 119-134.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혜원, 정지형, 김순정 (2019). 저소득 청소년이 인식한 지역사회환경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5), 647-658. doi:10.35873/ajmahs.2019.9.5.05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doi:10.1007/bf02202939
- Bloom, D. (2010). Programs and Policies to Assist High School Dropout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1), 89-108. doi:10.1353/foc.0.0039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16-432. doi:10.1177/0011000095233002

- Bronfenbrenner, U. (1995). **인간발달 생태학** (이영 역.). 서울: 교육과학사.
- Chartrand, J. M., Robbins, S. B., Morrill, W. H., & Boggs, K.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Factor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491-501. doi:10.1037/0022-0167.37.4.491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doi:10.1080/10705510701301834
- Creed, P. A., & Hughes, T. (2013). Career development strategies as moderators between career compromise and career outcomes in emerging adul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0*(2), 146-163. doi:10.1177/0894845312437207
- Harvey, R. D.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ical impact of social stigm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2), 174-189. doi:10.1080/00224540109600545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doi:10.1111/j.1751-9004.2007.00054.x
- Muthén, B., & Shedden, K. (1999). Finite mixture modeling with mixture outcomes using the EM algorithm. *Biometrics, 55*(2), 463-469. doi:10.1111/j.0006-341x.1999.00463.x
- Peterson, G. W., Sampson Jr, J. P., & Reardon, R. C. (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s: A cognitive approach*. Thomson Brooks/Cole Publishing Co.
- Petras, H., & Masyn, K. (2010). *General growth mixture analysis wi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hange*. In Handbook of quantitative criminology (pp. 69-100). Springer, New York, NY. doi:10.1007/978-0-387-77650-7_5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doi:10.1177/1069072708318900

- Shin, Y. J., & Lee, J. Y. (2019). Self-Focused attention and career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adaptabili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7(2), 110-125. doi:10.1002/cdq.12175
- Super, D. E. (1988).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4), 351-357. doi:10.1002/j.2161-0045.1988.tb00509.x

ABSTRACT

The typology of changes in career anxiety and the effects of ecological factors of out-of-school adolescences, using growth mixture model

Kang, Minji* · Kim, Jimin* · Lee, Jiye* · Yang, Eunjoo**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ubtypes of the longitudinal changes in career anxiety perceived by out-of-school adolescences and to examine their determinants based on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 Theory. The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School Dropout Adolescents」 collected from 2014 to 2016 was analyzed using Growth Mixture Model. The results yielded four latent groups: 'decreasing', 'stable', 'increasing', and 'increasing with vulnerability'. Social stigma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classification of all latent groups, except for the stable and decreasing groups. Social integration predic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creasing and stable groups, and female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vulnerable increasing group than the stable or decreasing group. The level of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were not significant predictor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interventions at a societal level rather than a personal level may be more effective in dealing with career anxiety of out-of-school adolescences.

Key words: out-of-school adolescence, career anxiety, growth mixture model

* Korea University School of Psychology

** Korea University School of Psychology, Corresponding author, yange@korea.ac.kr